



국내 시장에서 만나고 싶은 KWC 2020 수상 미수입 와인 II

KWC 2020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미수입 와인들이 있다. 지난달에 이어 국내에 수입될길 바라는 숨은 보석들을 소개한다.
글 조은지 사진 장영수



컴파니아 아그리콜라 두 산구이날

아벨 페레이라 다 폰세카(Abel Pereira da Fonseca)가 포르투갈 중부 지역에 설립한 와이너리로, 4대째 같은 가문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역적 특색, 토양의 성격이 다른 3개의 에스테이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와인 양조 설비에 투자해 최신 시설을 갖추었다. 오래된 지하 숙성실과 양조실을 관광시설로 개조하여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

①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Quinta S. Francisco

까스텔라웅, 아라고네스, 토우리가 나시오날을 블렌딩한 풀바디 레드 와인이다. 잘 익은 붉은 과일과 초콜릿, 바닐라 향에 스파이시한 힌트도 어우러진다.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질감과 탄탄한 구조감이 뛰어난 균형을 이룬다. 파스타, 붉은 육류와 곁들여 마시기 좋다.



2

② Companhia Agricola do Sanguinhal Península de Lisboa

아라고네스와 까스텔라웅을 절반씩 블렌딩한 와인이다. 5개월간 프렌치 및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숙성 과정을 거쳤다. 강렬한 루비색을 띠며, 과실의 진한 향에 이어 바닐라, 스파이시한 향이 올라와 와인에 풍성함을 더한다. 훌륭한 밸런스와 길게 이어지는 여운도 인상적이다.

VIRGEN DE LAS VIÑAS

보데가 알마자라 비르겐 데 라스 비냐스

1961년 15명의 생산자가 설립한 와인 협동조합이다. 스페인 까스띠야 라 만차 지방의 토멜로소(Tomelloso)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여름철 기온은 최대 45도까지 올라간다. 오늘날 3,000여의 생산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포도밭 면적은 20,000ha에 달한다. 한편 이들은 2,400ha의 올리브 밭에서 재배한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도 생산하고 있다.



1 Lienzo Premium Blend

까베르네 소비뇽, 뽀뽀라니오, 메를로를 블렌딩했다. 18개월간 프렌치 및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숙성 과정을 거쳤다. 보랏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를 띠며 자두, 체리, 블랙베리와 블랙커런트의 진한 향과 오크향이 조화롭게 느껴진다. 구운 고기, 스테이크, 숙성된 치즈와 매칭하기 좋다.

2 Fidencio Crianza

뽀뽀라니오 100%로 빚은 와인이다. 프렌치 및 아메리칸 오크에서 6개월 숙성했다. 우아한 가넷 컬러를 띠며, 붉은 과일과 검은 과일 향이 물씬 피어난다. 우아한 탄닌과 신선한 산미의 밸런스가 훌륭하다. 특히 구운 고기, 숙성된 치즈와 좋은 궁합을 보인다.

3 Tomillar Crianza

뽀뽀라니오 100%로 만든 와인이다. 12개월간 프렌치 오크와 아메리칸 오크에서 숙성을 거쳤다. 진한 자주 빛을 띠며, 다채로운 붉은 과일 향에 이어 코코아와 스파이시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복합적인 풍미가 돋보인다. 바비큐, 스테이크, 숙성된 치즈와 곁들이기 좋다.



테르오스트랄 S.A.

테르오스트랄의 역사는 1938년 설립자 호세(José)가 칠레 꾸리코 밸리에 포도나무를 심으며 시작되었다. 이후 와인 업계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와인메이커 페르난도 바르가스(Fernando Vargas)가 합류하며, 테르오스트랄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카사블랑카, 마이포, 콜차구아, 꾸리코, 마울레 밸리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1 TerrAustral Tripantu Premium Cabernet Sauvignon

마울레 밸리의 까르메네르,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빚은 와인이다. 짙은 루비색을 띠며, 숙성된 야생 과일 향, 블랙페퍼의 스파이시한 향이 복합적으로 피어오른다. 입안에서는 적절한 산미와 부드러운 탄닌이 느껴진다.

2 TerrAustral PKNT Platinum Cabernet Sauvignon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메네르를 블렌딩한 와인으로 진한 보라색을 띤다. 서양 자두, 블랙베리, 카시스, 블랙커런트 등의 진한 과일 아로마가 주를 이루고 바닐라의 힌트도 돋보인다. 벨벳 같은 부드러운 탄닌과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긴 여운이 특징이다.

3 TerrAustral Santa Isle Grand Reserve Selected Vineyards Cabernet Sauvignon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르메네르를 블렌딩한 와인. 잘 익은 블랙베리와 블랙커런트 향에 이어 화이트 페퍼 향, 타바코 향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풍미를 보인다. 부드럽게 느껴지는 탄닌도 인상적이다.

FAMILIA FERNÁNDEZ RIVERA
Pasión por el vino y la tierra

- ☑ 전 세계에 스페인 와인의 저력을 알린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의 와인
- ☑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가 만든 유일한 화이트 와인
- ☑ '레드 와인의 영혼을 가진 화이트 와인'



Alejaren Crianza
알레하이렌 크리안자



SCEA 라테롱

오래 전부터 보르도 생페밀리옹 지역에 뿌리를 내린 라테롱 가문은 이곳에서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와인을 생산했다. 현재 생페밀리옹 지역에서도 높은 지대에 포도밭을 소유하며, 커다란 지하 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레드 와인과 함께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크레망 드 보르도)도 생산한다.



1 Chateau Tour Calon

메를로 83%에 까베르네 소비뇽 10%와 까베르네 프랑 7%를 섞었다. 깊고 진한 보라색을 띠는 풀바디 와인으로, 잘 익은 블랙 체리와 장미 꽃잎 향기가 짙게 감돈다. 이어 바닐라, 코코아 등 복합적인 향이 올라온다.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탄닌이 길게 지속된다. 숙성 잠재력 또한 뛰어나다.



라스 씩꼬 에르마나스

와인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다섯 자매가 운영하는 부띠끄 와인너리다. 칠레 산티아고 북서쪽, 발파라이소(Valparaiso)의 까빌도(Cabildo)에 위치해 있다.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이 마주하고 있어 포도 재배에 도움을 주는 미세 기후가 형성되는 곳으로, 모든 포도는 이곳에서 재배된다.



1 Rio Lua

리오 루아는 라스 씩꼬 에르마나스의 첫 프리미엄 와인이다. 까빌도 지역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까베르네 프랑, 메를로, 시라, 그르나슈를 블렌딩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 후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12~14개월간 숙성시켰다. 검은 과실과 꽃, 향신료 향과 함께 집중력이 뛰어난 탄닌을 느낄 수 있다.



CANTI
THE ITALIAN WINE STYLE

- ☑ 즐거운 파티와 오페라를 즐기는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와인 브랜드
- ☑ 이태리어로 '노래하다'는 뜻을 가진 칸티
- ☑ 이태리 피에몬테 지역의 유명한 와인 사업가 집안 마르티니 가문의 브랜드



Canti Moscato d'Asti
칸티 모스카토 다스티



Canti Piemonte Brachetto
칸티 피에몬테 브라케토